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는 주요국의 이동전화가입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주요국의 이동전화가입자수

국 가	이동전화가입자수(천명)		이동전화가입률(%)		이동전화가입자수 / 유선전화가입자수 (2008년)
	2003년	2008년	2003년	2008년	
A	33,592	45,607	71	95	2.14
B	86,655	110,395	68	87	2.28
C	13,291	22,093	42	66	1.21
D	160,637	270,500	54	87	1.75
E	41,702	57,972	69	94	1.66
F	64,800	105,523	75	149	2.05
G	6,189	8,897	84	118	1.84
H	54,256	77,361	91	126	2.51

주) 이동전화가입률(%) = $\frac{\text{이동전화가입자수}}{\text{총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2008년에 G국은 모든 국민이 1대 이상의 이동전화에 가입되어 있다.
 ㄴ. 2003년 대비 2008년에 총 인구가 감소한 국가는 없다.
 ㄷ. 2008년에 H국의 유선전화가입자수는 E국의 유선전화가입자수보다 많다.
 ㄹ. 2008년에 8개국 모두 이동전화가입자수가 유선전화가입자수보다 많다.
 ㅁ. 2003년 대비 2008년 이동전화가입률의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F국이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ㄹ, ㅁ

2. 다음 <표>는 재해로 인한 대륙별 피해와 인구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대륙별 재해유형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

(단위: 조원)

대 륙	홍 수	지 진	전 염 병
아 프 리 카	3.93	6.14	0.01
아 메 리 카	400.82	29.98	0.13
아 시 아	357.70	219.74	0.00
유 럽	142.83	16.17	0.00
오세아니아	14.51	0.87	0.14

<표2> 대륙별 재해유형에 따른 사망자수

(단위: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수)

대 륙	홍 수	지 진	전 염 병
아 프 리 카	1.30	0.37	7.31
아 메 리 카	6.23	0.41	1.13
아 시 아	5.19	7.54	0.39
유 럽	4.77	0.23	0.03
오세아니아	1.92	5.02	0.60

<표3> 대륙별 인구규모

(단위: 억명)

대 륙	인 구
아 프 리 카	10
아 메 리 카	5
아 시 아	40
유 럽	8
오 세 아 니 아	0.5

주) 홍수, 지진, 전염병 이외의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함

<보 기>

- ㄱ. 아시아의 재해 사망자수는 다른 모든 대륙의 재해 사망자수의 합보다 적다.
 ㄴ. 홍수에 의한 사망자수는 아프리카가 오세아니아보다 더 많다.
 ㄷ. 유럽과 아메리카의 재해별 경제적 피해액과 사망자수는 각각 <홍수><지진><전염병> 순서로 크다.
 ㄹ.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큰 순서는 아시아>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 이다.
 ㅁ. 재해로 인한 1인당 경제적 피해액의 경우 오세아니아가 유럽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ㄴ, ㄹ
 ⑤ ㄴ, ㅁ

3. 다음 <표>는 2008 회계연도 국내 전체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8 회계연도 국내 전체 손해보험사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보험사	화 재	해 상	자동차	특 종	장 기	개인연금	합 계
A	360	900	7,267	1,941	17,833	663	28,964
B	101	213	2,414	657	7,657	229	11,271
C	100	153	3,805	601	5,365	245	10,269
D	123	128	1,604	404	5,634	46	7,939
E	160	190	3,906	545	9,634	130	14,565
F	247	286	4,247	819	5,548	371	11,518
G	483	2,820	30,605	7,774	50,140	5,628	97,450
H	310	1,803	16,309	5,078	29,971	1,925	55,396
I	314	952	11,548	5,266	25,847	1,975	45,902
J	583	789	14,706	3,369	30,194	1,642	51,283
소계	2,781	8,234	96,411	26,454	187,823	12,854	334,557

<보 기>

- ㄱ. 원수보험료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한다.
- ㄴ. 모든 보험사의 원수보험료 중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 ㄷ. 모든 보험사의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의 원수보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ㄹ. 원수보험료 합계의 점유율 순위는 장기보험의 원수보험료 점유율 순위와 일치한다.
- ㅁ. 원수보험료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점유율 1위사는 점유율 2, 3위사를 합친 경우보다 모든 종목에서 점유율이 높다.

- ① $\neg$, $\exists$, $\square$
 ② $\neg$, $\square$
 ③ $\sqsubset$, $\exists$
 ④ $\neg$, $\neg$, $\square$
 ⑤ $\neg$, $\exists$

4. 다음 <표>는 모태펀드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함)

〈표1〉 모태펀드 투자재원 조성현황 및 계획

('09. 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09.2	'09.12 (계획)	
중진기금	1,701	1,100	900	800	590	850	5,351
문산기금	-	500	1,000	-	-	-	1,500
특허특별회계	-	550	550	-	300	600	1,700
합 계	1,701	2,150	2,450	800	890	1,450	8,551
누 계	1,701	3,851	6,301	7,101	7,991	8,551	

〈표2〉 모태펀드 결성 및 출자현황

('09. 2월말 기준, 단위: 개, 억원)

구 분	펀드수	결성예정액	출자약정액
중 진 기 금	71	19,995	5,213
문 산 기 금	22	3,756	1,282
특 허 특 별 회 계	16	3,120	1,082
계	109	26,871	7,577

〈표3〉 모태펀드 출자에 따른 분야별 투자조합 결성 현황

('09. 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유 형		금 액
정책성 펀드	창업초기기업펀드	795
	지방기업펀드	459
	여성기업펀드	50
문화산업전문펀드		566
특허기술사업화펀드		762
기업구조조정펀드		270
해외진출전문펀드		758
기타 일반펀드	부품소재	334
	일자리	100
	섬유	30
	퇴출벤처	465
	기타	2,988
합 계		7,577

<보 기>

- ㄱ. 모태펀드의 투자재원은 2009년 2월말 기준 8,551억원이 조성되었다.
- ㄴ. 총 출자액 중 문화산업전문펀드에는 약 7.5%, 특허기술사업화펀드에는 약 10.1%, 기타 일반펀드에는 약 39.4%가 출자되었다.
- ㄷ.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조성된 모태펀드 투자재원 중 중진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ㄹ. 정책성펀드에는 총 출자액 중 약 17.2%가 출자되었다.
- ㅁ. 펀드수 대비 출자액정액이 높은 순서는 중진기금>특허특별회계>문산기금 이다.

- ① $\neg$, $\perp$
② $\sqsubset$, $\sqsupset$
③ $\sqsubset$, $\square$
④ $\neg$, $\sqsubset$
⑤ $\sqsupset$, $\square$

5. 다음 <표>는 산모 나이에 따른 다운증후군 검사의 오류 확률과 태아의 다운증후군 발생 확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1〉 산모 나이에 따른 다운증후군 검사의 오류 확률

산모의 나이	오류-양성률	오류-음성률
30세 미만	0.4	0.4
30세~34세	0.1	0.3
35세~37세	0.2	0.2
38세 이상	0.3	0.1

주: 1) 오류-양성률: 다운증후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2) 오류-음성률: 다운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3) 다운증후군 검사의 결과는 양성 또는 음성으로만 나옴

〈표2〉 산모 나이에 따른 태아의 다운증후군 발생 확률

산모의 나이	발생 확률
30세 미만	1/1,300
30세 ~ 34세	1/1,000
35세 ~ 37세	1/500
38세 이상	1/100

- ① 30세 산모의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면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약 0.0007이다.
- ② 30세 산모의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아니면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약 0.0999이다.
- ③ 30세 산모의 태아에 대한 다운증후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약 0.1006이다.
- ④ 30세 산모의 태아에 대한 다운증후군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약 0.8994이다.
- ⑤ 35세 산모의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아니면서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약 0.6984이다.

6. 다음 <표>는 기업들의 연도별 순이익 추이와 매출액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연도 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	242	△141	△55	37	△16	137
B	409	519	318	△45	129	152
C	312	353	462	259	318	359
D	△174	△59	△189	66	△23	△45
E	253	△382	△538	△551	△762	105
F	351	292	△413	△458	509	767
G	506	255	167	△91	354	342

주) Δ 는 부(-)의 숫자를 의미함

〈표2〉 순이익 증가율 계산 필요 여부와 표기

순이익		금년도	
		흑자	적자
전년도	흑자	계산 필요	계산 필요 없음 '적자전환'으로 표기
	적자	계산 필요 없음 '흑자전환'으로 표기	계산 필요 없음 '적자지속'으로 표기

주) 금년도 순이익 증가율(%) = $\frac{(\text{금년도 순이익} - \text{전년도 순이익})}{\text{전년도 순이익}} \times 100$

〈표3〉 매출액 증가율 차이

(단위: %)

연도 기업	2004	2005	2006	2007	2008
A	△12	25	14	△0.4	14
B	40	14	△10	5	△8
C	20	△0.5	△20	30	35
D	15	△15	△8	△25	△10
E	△20	△5	△10	△12	24
F	△8	12	△5	△16	△20
G	25	20	△15	5	△1

$$\text{주)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금년도 매출액} - \text{전년도 매출액})}{\text{전년도 매출액}} \times 100$$

〈보기〉

- ㄱ. 2004~2008년에 '적자전환'된 기업이 2개 이상 기록된 연도수는 3개 연도이다.
- ㄴ. 2004~2008년에 순이익 증가율 계산이 필요한 기업이 3개 이상 기록된 연도수는 4개 연도이다.
- ㄷ. 2004~2008년에 '흑자전환'된 연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는 4건이다.
- ㄹ. 2004~2008년에 전년 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은 매년 3개 이상 기록된다.
- ㅁ. 2005~2008년에 2년 연속으로 '적자지속'인 기업이 1개 이상 기록된 연도수는 3개 연도이다.

- ① $\neg$, $\perp$, $\exists$
② $\neg$, $\sqsubset$, $\square$
③ $\perp$, $\sqsubset$, $\exists$
④ $\perp$, $\sqsubset$, $\square$
⑤ $\perp$, $\exists$, $\square$

7. 다음 <그림>은 성별 주요 경제활동지표 및 고용변동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추이

〈그림2〉 성별 고용변동 추이

주: 1)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구분됨

$$2) \text{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 인구}} \times 100$$

$$3) \text{ 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이상 인구}} \times 100$$

$$4) \text{ 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실업률은 전 기간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 ㄴ. 전 기간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ㄷ.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ㄹ. 전체 취업자수 증가 중 여성 취업자수 증가 비중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감소하였다.

- ① $\neg$, $\vdash$
② $\neg$, $\exists$
③ $\neg$, $\wedge$, $\vdash$
④ $\wedge$, $\vdash$, $\exists$
⑤ $\neg$, $\wedge$, $\exists$

8. 다음 <표>는 1979~1981년 A국 생명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979~1981년 A국 생명표(일부)

연령구간	각 연령구간의 시작 시점에 생존한 사람수	각 연령구간 내에 사망한 사람수
0~1일	100,000	463
1~7일	99,537	245
7~28일	99,292	138
28~365일	99,154	414
1~2세	98,740	92
2~3세	98,648	64
3~4세	98,584	49
4~5세	98,535	40
중 략		
20~21세	97,741	118
21~22세	97,623	124
22~23세	97,499	129
23~24세	97,370	130
24~25세	97,240	130
중 략		
60~61세	83,726	1,145
61~62세	82,581	1,233
62~63세	81,348	1,324
63~64세	80,024	1,415
64~65세	78,609	1,502
중 략		
97~98세	78	27
98~99세	51	18
99~100세	33	12

- 주: 1) 100,000명이 출생했다고 가정하고 각 연령구간의 시작 시점에 생존한 사람의 수와 그 연령구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수를 기록한 것임. 일반적으로 연령구간은 1년으로 되어있으나 첫 해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음
2) 연령구간 [x, x + 1]의 사망률은 x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로 정의하고, x와 (x + 1)세 사이에 사망한 사람수를 x세까지 생존한 사람수로 나눈 것임

<보 기>

- ㄱ. 출생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
ㄴ. 1세 이후 각 연령구간에서의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ㄷ. 100세 이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0.00033이다.
ㄹ.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65세 이후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ㅁ. 1.26%의 신생아가 출생 후 1년 안에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9. 다음 <표>는 5개 기업(갑~무)의 재무지표 증가율과 레버리지 산출 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A~E에 해당하는 기업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표1> 재무지표 증가율

(단위: %)

구분	영업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주당순이익 증가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A	34.2	5.5	20.6	4.5	12.7	11.0
B	24.9	3.2	13.7	9.8	5.4	19.8
C	32.0	12.9	24.6	5.8	2.7	8.9
D	23.5	16.9	46.8	12.5	25.7	5.2
E	2.4	1.8	10.7	16.7	17.8	7.5

주) t년 재무지표 증가율(%) = $\left[\frac{t\text{년 재무지표}}{(t-1)\text{년 재무지표}} - 1 \right] \times 100$

<표2> 레버리지 산출 방식

- o t년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

$$= \frac{t\text{년 영업이익} - (t-1)\text{년 영업이익}}{t\text{년 매출액} - (t-1)\text{년 매출액}} \times \frac{(t-1)\text{년 매출액}}{(t-1)\text{년 영업이익}}$$
o t년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 \frac{t\text{년 주당순이익} - (t-1)\text{년 주당순이익}}{t\text{년 영업이익} - (t-1)\text{년 영업이익}} \times \frac{(t-1)\text{년 영업이익}}{(t-1)\text{년 주당순이익}}$$
o t년 결합레버리지(combined leverage)

$$= t\text{년 영업레버리지} \times t\text{년 재무레버리지}$$

<정 보>

- o 2009년의 결합레버리지가 1 미만인 기업은 ‘을’과 ‘정’이다.
o 2008년의 영업레버리지가 재무레버리지보다 높은 기업은 ‘갑’, ‘병’, ‘무’이다.
o 2008년 대비 2009년 영업레버리지가 증가한 기업은 ‘갑’과 ‘정’이다.
o 2009년 ‘무’의 재무레버리지는 ‘병’의 3배 이상이다.

-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u>E</u> |
| ① | 병 | 무 | 갑 | 정 | 을 |
| ② | 병 | 갑 | 무 | 을 | 정 |
| ③ | 무 | 갑 | 병 | 정 | 을 |
| ④ | 무 | 병 | 갑 | 을 | 정 |
| ⑤ | 무 | 병 | 갑 | 정 | 을 |

10. 다음 <표>와 <정보>는 자극실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자극실험 설계 및 결과

집 단		사전측정	실험적 자극 여부	사후측정
사전 측정 집단	제1실험집단	O ₁ (20)	자극	O ₃ (42)
	제1통제집단	O ₂ (22)	자극없음	O ₄ (34)
사전 비측정 집단	제2실험집단	-	자극	O ₅ (34)
	제2통제집단	-	자극없음	O ₆ (28)

- 주: 1) ()안의 숫자는 실험의 결과
2) 실험대상은 특정 모집단에서 무작위 배정함

<정 보>

- 제1실험집단에서 사전 사후 측정값의 차이
 $(O_3 - O_1) = \text{실험변수의 효과} + \text{사전측정의 효과} + \text{측정과 처리의 상호작용효과} + \text{기타 외재적 변수의 효과}$
- 제1통제집단에서 사전 사후 측정값의 차이
 $(O_4 - O_2) = \text{사전측정의 효과} + \text{기타 외재적 변수의 효과}$
- 제2실험집단에서 사전 사후 측정값의 차이
 $O_5 - \frac{(O_1 + O_2)}{2} = \text{실험변수의 효과} + \text{기타 외재적 변수의 효과}$
- 제2통제집단에서 사전 사후 측정값의 차이
 $O_6 - \frac{(O_1 + O_2)}{2} = \text{기타 외재적 변수의 효과}$

주) O : 측정값

- ① ‘사전측정의 효과’가 ‘실험변수의 효과’보다 크다.
- ② ‘측정과 처리의 상호작용효과’는 ‘기타 외재적 변수의 효과’보다 크다.
- ③ ‘실험변수의 효과’는 ‘측정과 처리의 상호작용효과’보다 크다.
- ④ ‘실험변수의 효과’가 네 가지 효과 중 가장 크다.
- ⑤ ‘사전측정의 효과’와 ‘측정과 처리의 상호작용효과’는 같다.

11. 다음 <표>는 은진이의 호텔평가 결과이다. <정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마 호텔을 평가할 때, 은진이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는 호텔은?

<표> 은진이의 호텔평가 결과

구 분		속 성		
		위치	가격	서비스의 질
각 속성의 중요도		50%	30%	20%
평가대상호텔	가	8	7	9
	나	7	9	9
	다	9	6	8
	라	7	8	9
	마	8	8	7

<정 보>

- Fishbein의 다속성태도모델(multi-attribute attitude model)
 공식 $A = B \cdot I$
 - A : 특정대안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n object)
 A 값이 클수록 특정대안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
 - B : 고객이 특정대안의 속성 에 부여하는 점수신념(belief)
 - I : 고객에게 속성 가 가지는 중요도(importance)
 - n : 본 제품 구입에 있어 고객이 고려하는 총 제품속성의 수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12. 다음 <표>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430명의 문화활동 경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모든 항목에 대해 무응답자는 없음)

<표> 20세 이상 성인 남녀 문화활동 경험

(단위: %)

문화활동	성별		연령대별		
	남	여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영화/애니메이션 관람	76.1	72.6	96.2	74.6	24.9
연극공연 관람	33.8	35.7	48.6	27.5	10.4
클래식음악공연 관람	24.7	28.9	38.5	23.8	6.8
뮤지컬공연 관람	26.2	32.7	43.9	25.0	5.4
서양무용공연 관람	17.1	14.6	25.6	9.8	4.3
미술전시 관람	41.4	43.3	56.6	39.6	15.7
대중음악콘서트 관람	22.9	30.7	42.8	30.2	9.6

<보 기>

- ㄱ. 대중음악콘서트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응답자수가 대중음악콘서트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40~50대 응답자수보다 많다.
- ㄴ. 뮤지컬공연을 관람한 응답자수가 대중음악콘서트를 관람한 응답자수보다 많다.
- ㄷ. 7가지의 문화활동 중 가장 소수의 응답자들이 경험했다고 답한 것은 서양무용공연 관람이다.
- ㄹ. 40대 이상의 응답자 중 뮤지컬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4%이다.
- ㅁ. 영화/애니메이션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수는 적어도 1,038명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13. 다음 <그림>과 <표>는 각국의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해석 중 옳은 것은?

<그림> 중앙집권적 정도와 근로강제 수준에 기초한 사회부조제도의 유형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적
강한 근로강제	유형 I 영국	유형 III 노르웨이
약한 근로강제	유형 II 핀란드	유형 IV 스웨덴

<표> 국가별 사회부조제도의 급여 이전 전·후 빈곤율

(단위: %)

국 가	사회부조 급여 이전 전 빈곤율 (A)	사회부조 급여 이전 후 빈곤율 (B)
영 국	27.5	24.5
핀 란 드	25.7	23.8
노르웨이	25.1	24.7
스웨덴	28.0	27.1

주) 빈곤완화효과 = $\frac{A - B}{A} \times 100$

- ① 위 4개국 중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핀란드이다.
- ② 위 4개국 중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작은 국가는 스웨덴이다.
- ③ 중앙집권적이고 강한 근로강제형인 유형 I의 빈곤완화효과가 지방분권적이고 약한 근로강제형인 유형 IV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더 작다.
- ④ 근로강제 수준이 강한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이 근로강제 수준이 약한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보다 크다.
- ⑤ 지방분권적인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이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빈곤완화효과 평균값보다 크다.

14. 다음 <표>는 2009년 ISU(국제빙상연맹) 주최 4대륙 피겨스케이팅 여자 쇼트 프로그램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09년 ISU 주최 4대륙 피겨스케이팅 여자 쇼트 프로그램 결과

순위	이름	국가	TSS	TES	PCS	SS	TR	PE	CH	IN	합점
1	Kim Yu-Na	한국	72.24	42.20	30.04	7.60	7.10	7.65	7.55	7.65	0
2	Rochette Joannie	캐나다	66.90	37.90	29.00	7.30	7.00	7.25	7.35	7.35	0
3	Phaneuf Cynthia	캐나다	60.98	34.70	26.28	6.65	6.15	6.80	6.60	6.65	0
4	Suguri Fumie	일본	60.18	33.70	26.48	6.80	6.30	6.70	6.70	6.60	0
5	Zhang Caroline	미국	58.16	32.40	25.76	6.50	6.25	6.35	6.55	6.55	0
6	Asada Mao	일본	57.86	29.10	28.76	7.40	6.85	7.20	7.25	7.25	0
7	Czisny Alissa	미국	55.62	30.10	26.52	6.75	6.30	6.55	6.75	6.80	1
8	Flatt Rachael	미국	55.44	30.00	25.44	6.45	6.15	6.35	6.50	6.35	0
9	Suzuki Akiko	일본	55.40	30.88	24.52	6.20	5.80	6.25	6.20	6.20	0
10	Lacoste Amelie	캐나다	49.78	29.62	21.16	5.40	5.05	5.35	5.30	5.35	1

- 주: 1) TSS = Total Segment Score(총점수)
 2) TES = Total Element Score(기술점수)
 3) PCS = Total Program Component Score(프로그램 구성점수)
 4) SS = Skating Skills(스케이팅 기술)
 5) TR = Transition/Linking footwork(트랜지션/풋워크)
 6) PE = Performance/Execution(연기/수행)
 7) CH = Choreography/Composition(안무)
 8) IN = Interpretation(해석)
 9) SS, TR, PE, CH, IN은 PCS를 이루는 구성요소임

<보 기>

- ㄱ. PCS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점수의 합에 어떤 상수(factor)를 곱해서 얻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 채점표에서 곱해지는 상수는 1보다 작다.
- ㄴ. 채점표에 나타난 선수들 가운데 TES 대비 PCS가 가장 높은 선수는 Kim Yu-Na 선수이다.
- ㄷ. Kim Yu-Na 선수는 모든 요소(감점 제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 ㄹ. 캐나다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 선수들의 경우 캐나다 선수들보다 TES 대비 PCS가 높다.
- ㅁ. TES만으로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순위와 달라지지 않는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그림3〉 50대 남성의 비만 정도별 인구비율

〈그림4〉 60대 이상 남성의 비만 정도별 인구비율

〈표〉 체질량지수표

구 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저 체 중	18.5미만
정 상	18.5~24.9
과 체 중	25.0~29.9
경 도 비 만	30.0~34.9
고 도 비 만	35.0이상

주) 체질량지수 = $\frac{\text{몸무게(kg)}}{\text{신장(m)} \times \text{신장(m)}}$

〈보 기〉

- ㄱ. 한국 남성 중 과체중 이상 인구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ㄴ.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은 경도비만 또는 고도비만이다.
 ㄷ. 신장이 175cm이고, 체중이 75kg인 50대 남성은 과체중이다.
 ㄹ. 한국의 40대 이상 남성의 70% 이상은 체질량지수가 25.0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17. 다음 <표>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지불원천별 사용률 및 평균사용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지불원천별 사용률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

구 분		사용률(%)			
		소 득	저 축	대 출	학비보조
자녀학년	1~2학년	72.3	78.9	31.1	7.7
	3~4학년	68.1	85.3	34.7	13.4
자녀성별	남자	72.1	84.2	33.6	10.1
	여자	71.6	80.3	33.0	10.9
대학유형	국공립대	70.9	81.1	28.7	12.1
	사립대	72.1	82.9	35.3	8.9
형제·자매 수	없음	74.8	79.6	34.8	10.8
	1명	68.0	82.3	30.4	10.3
	2명 이상	67.1	85.9	36.1	11.1

주) 사용률(%) = $\frac{\text{해당 지불원천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부모수}}{\text{유형별 학부모수}} \times 100$

〈표2〉 지불원천별 평균사용액 설문조사 결과

구 분		평균사용액(천원)			
		소 득	저 축	대 출	학비보조
자녀학년	1~2학년	1,711	3,131	1,292	223
	3~4학년	1,632	3,145	1,339	231
자녀성별	남자	1,678	3,147	1,330	223
	여자	1,664	3,125	1,302	229
대학유형	국공립대	1,630	2,970	1,311	228
	사립대	1,745	3,411	1,330	227
형제·자매 수	없음	1,731	3,040	1,291	226
	1명	1,643	3,166	1,296	228
	2명 이상	1,636	3,191	1,340	227

〈보 기〉

- ㄱ. 자녀학년, 자녀성별, 대학유형 및 형제·자매 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한 지불원천은 저축이고, 그 다음이 소득, 대출의 순서이다.
 ㄴ. 형제·자매 수가 많아질수록 저축과 대출을 지불원천으로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이 각각 증가하고, 그 평균사용액도 각각 증가한다.
 ㄷ.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남학생의 부모가 대출받은 총액은 여학생의 부모가 대출받은 총액보다 많다.
 ㄹ. 자녀학년, 자녀성별, 대학유형 및 형제·자매 수에 관계없이 학비보조를 받는 비율보다 대출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이고, 대출을 받는 비율보다 저축을 사용하는 비율이 2배 이상이다.
 ㄹ. 자녀학년, 자녀성별, 대학유형 및 형제·자매 수에 관계없이 소득, 대출 및 학비보조의 평균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저축의 평균사용액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ㄹ, ㄹ

18. 다음 <그림>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주: 1) 통합재정수지 = 중앙정부의 총수입 - 중앙정부의 총지출
 2)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 + 공적자금 원금상환액
 (단, 공적자금의 원금상환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졌음)

<보 기>

- ㄱ. 전년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중앙정부의 GDP 대비 총수입이 크게 낮아졌거나, GDP 대비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 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흑자 규모가 공적자금 원금상환액보다 컸다.
- ㄷ. 전년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사회보장성기금의 GDP 대비 재정흑자 비율이 1%p 이상 낮아졌다.
- ㄹ. 전년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해에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9. 다음 <표>는 은행권 유통 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은행권 유통 동향

(단위: 억원, %)

기준 시점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합 계	
	발행 잔액	유통 비중	발행 잔액	유통 비중	발행 잔액	유통 비중	발행 잔액	유통 비중	발행 잔액	유통 비중
'09.6.22	-	-	259,480	92.2	10,218	3.6	11,731	4.2	281,429	100.0
'09.6.23	16,462	5.5	259,185	86.8	10,225	3.4	12,697	4.3	298,569	100.0
'09.6월말	24,835	8.2	255,880	84.5	10,258	3.4	11,770	3.9	302,743	100.0
'09.7월말	42,291	13.7	244,759	79.2	10,049	3.3	11,691	3.8	308,790	100.0
'09.8월말	52,978	17.0	236,792	76.0	9,991	3.2	11,679	3.8	311,440	100.0
'09.9월말	77,244	21.6	256,333	71.8	10,879	3.0	12,697	3.6	357,153	100.0
'09.10월말	77,560	23.4	231,531	69.8	10,449	3.1	12,266	3.7	331,806	100.0
'09.11월말	85,787	25.5	228,576	67.9	10,222	3.0	12,047	3.6	336,632	100.0

- 주: 1) 유통매수 = $\frac{\text{해당 은행권 발행잔액}}{\text{해당 은행권 액면가}}$
 2) 유통비중(%) = $\frac{\text{해당 은행권 발행잔액}}{\text{은행권 발행잔액 합계}} \times 100$
 3) '09년 6월 22일 이전에는 5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다고 가정함
 4) 고액권이라 함은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의미함
- ① '09년 6월 22일 기준의 1만원권 유통비중은 '09년 6월 23일 이후 5만원권과 1만원권 유통비중의 합보다 작다.
 - ② 1만원권의 '09년 9월 말 기준 유통매수와 '09년 8월 말 기준 유통매수와의 차이는 1천원권의 '09년 9월 말 기준 유통매수와 '09년 8월 말 기준 유통매수와의 차이의 2배보다 작다.
 - ③ 5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5만원권의 유통매수는 매월 말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1만원권의 경우에는 9월 말을 제외하면 매월 말 기준 유통매수가 전월 말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④ 5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매월 말 기준으로 고액권의 유통 비중은 전월 말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⑤ '09년 11월 말 기준으로 1천원권의 유통매수는 1만원권 유통매수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20. 다음 <표>는 2009년 주요 OECD 국가의 인간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1〉 2009년 주요 OECD 국가의 인간발전지수(HDI)

구분 국가	HDI	출생시 기대수명 (년)	성인 문자해독률 (%)	취학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기대수명 지수	교육 지수	국내 총생산 지수
A	()	78.0	99.0	92.4	43,968	0.884	0.968	1.000
B	()	81.6	99.0	96.0	35,814	0.944	0.980	0.982
C	()	71.6	88.1	71.1	11,535	0.776	()	0.792
D	()	75.3	99.3	87.7	14,675	()	0.952	0.833
E	()	78.2	99.0	98.5	22,985	()	0.988	0.908
OECD 평균	0.925	78.5	-	89.1	30,879	0.891	0.927	0.957

〈표2〉 각 지수 계산을 위한 최대값과 최소값

지 수	최대값	최소값
출생시 기대수명(년)	85	25
성인 문자해독률(%)	100	0
취학률(%)	100	0

주: 1) 인간발전지수(HDI) = $\frac{(\text{기대수명지수} + \text{교육지수} + \text{국내총생산지수})}{3}$

$$2) \text{ 기대수명지수} = \frac{(\text{출생시 기대수명 실제값} - \text{출생시 기대수명 최소값})}{(\text{출생시 기대수명 최대값} - \text{출생시 기대수명 최소값})}$$
$$3) \text{ 성인 문자해독률지수} = \frac{(\text{성인 문자해독률실제값} - \text{성인 문자해독률최소값})}{(\text{성인 문자해독률최대값} - \text{성인 문자해독률최소값})}$$
$$4) \text{취학률지수} = \frac{(\text{취학률 실제값} - \text{취학률 최소값})}{(\text{취학률 최대값} - \text{취학률 최소값})}$$
$$5) \text{ 교육지수} = \left(\frac{2}{3} \times \text{성인 문자해독률지수} \right) + \left(\frac{1}{3} \times \text{취학률지수} \right)$$

- ① 각 국의 취학률과 교육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 ② B국가의 인간발전지수가 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 ③ C국가의 교육지수가 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 ④ D국가의 인간발전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다.
- ⑤ E국가의 인간발전지수는 E국가의 국내총생산지수보다 낮다.

21. 다음 <표>는 2009년 우리나라 사업체기초조사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종을 고르면?

〈표〉 2009년 사업체기초조사

(단위: 개, 명)

산업별	사업체수	총종사자	종사자별 고용형태			
			자영업주	문·급·가족 및 무급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총 계	1,401,784	11,869,493	961,702	886,554	8,444,484	1,576,753
농업 및 임업	1,539	21,714	0	990	15,548	5,176
어업	193	3,892	0	171	3,088	633
광업	1,098	16,884	438	355	15,165	926
제조업	212,920	3,251,803	145,078	33,217	2,836,570	236,93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85	56,011	133	52	54,436	1,390
건설업	64,267	809,992	21,367	16,401	488,986	283,238
도매 및 소매업	311,965	1,670,901	231,196	240,258	964,955	234,492
숙박 및 음식점업	269,594	1,119,120	263,294	125,148	420,380	310,298
운수업	34,641	565,200	11,428	44,743	472,223	36,806
통신업	6,243	93,654	3,440	8,892	73,696	7,626
금융 및 보험업	32,221	615,335	2,061	216,681	369,798	26,795
부동산 및 임대업	53,724	334,108	25,382	21,297	261,124	26,305
사업서비스업	70,322	1,134,007	36,305	24,335	939,794	133,573
교육서비스업	71,698	696,108	58,096	78,397	445,909	113,70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1,688	660,115	61,075	4,938	559,999	34,10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8,319	256,920	42,750	17,775	126,323	70,07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50,267	563,729	59,659	52,904	396,490	54,676

〈정 보〉

- 이 산업은 ‘상용종사자’ 대비 ‘임시 및 일용종사자’수의 비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 이 산업은 ‘총종사자’ 중 ‘무급가족 및 무급종사자’수의 비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 이 산업은 사업체 1개당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다.
- 이 산업은 ‘임시 및 일용종사자’수가 1,000명 이하이면서 ‘자영업주’가 있는 산업이다.

- ① 사업서비스업 ② 광업
③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④ 숙박 및 음식점업
⑤ 금융 및 보험업

22. 다음 <표>는 각 가정의 에너지 기준사용량과 당월사용량에 관한 자료이다. A도시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활동의 장려를 위해 <정보>와 같은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1> 기준사용량

구 분	윤경이네	여름이네	명진이네	지혜네
수도(m ³)	50	20	30	40
전기(kwh)	200	300	100	400
도시가스(m ³)	30	20	30	10

<표2> 당월사용량

구 분	윤경이네	여름이네	명진이네	지혜네
수도(m ³)	40	25	40	30
전기(kwh)	150	200	200	300
도시가스(m ³)	20	30	10	20

<정 보>

- 수도: 1m³ 절약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300g 감소
- 전기: 1kwh 절약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400g 감소
- 도시가스: 1m³ 절약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3,000g 감소
- 이산화탄소: 10g 감소시킬 때마다 1포인트 지급
- 1포인트당 3원 지급
-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만 포인트를 지급함
- 에너지 사용량 초과에 따른 포인트 차감은 없음

- ① 윤경이네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의 당월사용량이 각각 기준사용량보다 적었으며, 네 가정 중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 ② 가장 많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 부문은 도시가스이며, 가장 적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 부문은 수도이다.
- ③ 윤경이네와 여름이네 포인트의 합은 명진이네와 지혜네의 포인트의 합보다 많다.
- ④ 명진이네 수도와 전기의 당월사용량이 각각 기준사용량을 초과했으나 도시가스 부문으로 인하여 18,000원을 지급받는다.
- ⑤ 여름이네와 지혜네는 둘 다 전기 부문에서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23. 다음 <표>는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지출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한국의 국민의료비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국민의료비 (GDP 대비)	12.4 (4.3)	16.3 (4.1)	20.9 (4.3)	24.3 (4.6)	34.1 (5.5)	40.6 (5.6)	49.2 (6.1)	61.3 (6.8)
공공의료비 (구성비)	4.3 (34.7)	5.9 (36.2)	8.7 (41.6)	11.4 (46.9)	17.6 (51.6)	20.2 (49.8)	25.6 (52.0)	33.7 (55.0)
민간의료비 (구성비)	8.1 (65.3)	10.4 (63.8)	12.2 (58.4)	12.9 (53.1)	16.5 (48.4)	20.4 (50.2)	23.6 (48.0)	27.6 (45.0)

<표2> 2007년 주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

(단위: %)

OECD 평균	한국	미국	스위스	일본	멕시코	폴란드
8.9	6.8	16.0	10.8	8.1	5.9	6.4

<표3> 2007년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단위: %)

OECD 평균	한국	미국	스위스	일본	멕시코	폴란드
72.8	55.0	45.4	59.3	81.3	45.2	70.8

주)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민간의료비

<보 기>

- ㄱ. 2007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크다.
- ㄴ. 2005년 한국은 GDP의 4% 이상을 공공의료비로 지출했다.
- ㄷ. 2007년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이 큰 나라일 수록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이 크다.
- ㄹ. 2007년 일본의 GDP 대비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은 2007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의료비 지출 비중보다 작다.
- ㅁ. 1993년 대비 2007년 한국의 공공의료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민간의료비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ㄹ
- ⑤ ㄷ, ㅁ

24. 다음 <표>는 2008년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의 TV 판매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2008년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의 TV 판매가격

제조국	제조사	화면크기	미국시장가격 (A)	한국시장가격		C/A
				원화가격(B)	달러환산가격(C)	
한국	○○	32인치	600.0달러	990,000원	825.0달러	1.375
		37인치	699.0달러	1,100,000원	916.7달러	1.311
한국	□□	46인치	1,512.0달러	2,450,000원	2,041.7달러	1.350
		52인치	2,675.0달러	3,470,000원	2,891.7달러	1.081
일본	△△	52인치	2,149.5달러	3,500,000원	2,916.7달러	1.357

- 주: 1) 달러환산가격(C)은 환율 1,200원 / 달러를 일괄 적용한 가격임
 2) 미국시장은 무관세라고 가정함
 3) 한국시장의 △△ TV 판매가격은 8%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임

- ① 한국에서의 ○○사 TV 판매가격은 미국에서의 ○○사 같은 화면크기 TV 판매가격보다 각각 30% 이상 비싸다.
- ② □□사와 △△사 52인치 TV의 한국시장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사의 TV가 더 가격경쟁력이 있다.
- ③ 한국시장에서 △△사 TV의 관세 부과전 가격은 미국시장에서 △△사 TV 판매가격보다 25% 이상 비싸다.
- ④ 한국 정부에서 △△사 TV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의 52인치 TV는 △△사 TV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다.
- ⑤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시장에서의 TV제조사간 경쟁이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보다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25. 다음 <표>는 어떤 나라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여성의 결혼율과 조출산율

구 분	1970년	1980년	1988년
기혼여성 조출산율	120.0	99.1	94.7
결혼율(%)	65.7	53.2	51.0
미혼여성 조출산율	26.4	28.4	38.6
미혼율(%)	34.3	46.8	49.0
총 조출산율	87.9	68.4	67.2
30~34세 여성 미혼율(%)	6.4	9.5	16.1
백인(%)	5.7	8.2	13.0
흑인(%)	11.0	19.0	36.9

주) 조출산율 : 여성 천명당 출산건수

〈표2〉 연령별, 인종별 미혼여성 조출산율 추이

구 분		전 체	연령대별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백 인	1970년	13.9	10.9	22.5	21.1	14.2	7.6	2.0
	1975년	12.4	12.0	15.5	14.8	9.8	5.4	1.5
	1980년	16.2	15.9	22.4	17.3	10.5	5.3	1.4
	1985년	21.8	20.5	30.9	27.3	17.5	8.6	1.9
	1987년	24.6	22.8	35.8	30.7	21.2	10.3	2.3
	1988년	26.6	24.8	38.3	33.8	22.9	11.5	2.6
흑 인	1970년	95.5	96.9	131.5	100.9	71.8	32.9	10.4
	1975년	84.2	93.5	108.0	75.7	50.0	20.5	7.2
	1980년	83.2	90.3	116.0	82.9	47.0	18.5	5.5
	1985년	78.8	88.8	116.1	81.4	48.8	21.3	4.5
	1987년	84.7	92.6	129.9	93.6	54.2	23.5	5.1
	1988년	88.8	98.3	138.2	99.2	58.7	25.3	5.3

<보 기>

- ㄱ. ‘기혼여성 조출산율’ 감소는 1970년 이후 ‘총 조출산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다.
- ㄴ. 1970년 이후 30~34세 ‘흑인여성 미혼율’의 증가가 ‘미혼여성 조출산율’ 증대의 주요한 원인이다.
- ㄷ. 만약 1988년 전체 미혼여성 중 백인이 60%, 흑인이 40%를 차지한다면 흑인 미혼여성의 출산건수는 백인 미혼여성 출산건수의 3배에 미치지 못한다.
- ㄹ. 만약 1988년 전체 여성 인구가 1천만명이라면 기혼여성의 총 출산건수는 50만 건을 초과한다.

- ① $\neg, \perp$
② $\perp, \vdash$
③ $\neg, \vdash$
④ $\vdash, \vdash$

- ⑤ $\neg, \supset$

26. 다음 <표>는 1년 동안 A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1차 심사결과 분포 및 판정처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1차 심사결과 분포

(단위: 편수)

1차 심사결과		제2심사자				합 계
		계재 적합	소폭 수정	대폭 수정	계재 부적합	
제 1 심 사 자	계재 적합	30	40	60	20	150
	소폭 수정	-	80	120	60	260
	대폭 수정	-	-	130	90	220
	계재 부적합	-	-	-	120	120
합 계		30	120	310	290	750

주) A학회지 논문 심사는 2명의 심사자가 담당함

〈표2〉 ‘최종 게재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의 1차 심사결과 분포

(단위: 편수)

1차 심사결과		제2심사자				합 계
		계재 적합	소폭 수정	대폭 수정	계재 부적합	
제 1 심사 자	계재 적합	30	40	35	5	110
	소폭 수정	-	80	55	5	140
	대폭 수정	-	-	40	0	40
	계재 부적합	-	-	-	0	0
합 계		30	120	130	10	290

〈표3〉 1차 심사의 판정처리

제1심사자	제2심사자	판정 처리
게재 적합	게재 적합	게재 적합
	소폭 수정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제2심사자 대신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
소폭 수정	소폭 수정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제2심사자 대신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
대폭 수정	대폭 수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게재 불가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불가

<보 기>

- ㄱ. 1차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전체 투고 논문의 60% 이상이다.
- ㄴ. 1차 심사결과 이후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해야 할 논문은 전체 투고 논문의 10% 이상이다.
- ㄷ. 1차 심사자 2명으로부터 모두 ‘대폭 수정’을 받은 논문에서 ‘최종 게재 적합’ 판정이 나온 논문의 비율은 30% 이상이다.
- ㄹ. 1년 동안 투고된 논문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120편이다.
- ㅁ. 1차 심사에서 최종 게재 여부가 확정된 논문은 240편이다.

- ① $\neg$, $\perp$, $\vdash$
② $\perp$, $\exists$, $\square$
③ $\perp$, $\vdash$, $\square$
④ $\perp$, $\vdash$, $\exists$

⑤ $\neg, \sqcup, \sqcap$

27. 다음 <표>는 각국의 학력별 소득분포 및 소득수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A국의 학력별 소득

구 분	소득분포			학력별 소득수준 (고등학교 졸업자 소득 = 100)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중 학교 졸업자	32	64	4	67
고등학교 졸업자	16	73	11	100
대 학교 졸업자	9	63	28	141

〈표2〉 B국의 학력별 소득

구 분	소득분포			학력별 소득수준 (고등학교졸업자 소득 = 100)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중 학교 졸업자	25	73	2	82
고등학교 졸업자	16	80	4	100
대 학교 졸업자	12	76	12	125

〈표3〉 C국의 학력별 소득

구 분	소득분포			학력별 소득수준 (고등학교졸업자 소득 = 100)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중 학교 졸업자	42	56	2	65
고등학교 졸업자	24	69	7	100
대 학교 졸업자	12	60	28	176

주: 1) 가 그룹 = 소득 중간값의 절반 이하를 받는 사람
 2) 나 그룹 = 소득 중간값의 절반 초과 ~ 2배 미만을 받는 사람
 3) 다 그룹 = 소득 중간값의 2배 이상을 받는 사람
 * 소득 중간값 = 전체 국민을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年)소득

<보 기>

- ㄱ. ‘중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교 졸업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C국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B국이다.
- ㄴ. ‘대학교 졸업자’의 소득분포가 가장 균등한 나라는 A국이다.
- ㄷ. 가 그룹과 나 그룹의 평균소득을 합하여 2로 나누면 ‘소득 중간값’이 된다.
- ㄹ.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수준의 경우 A국이 B국의 2배라면, A국의 ‘중학교 졸업자’의 소득수준은 B국의 ‘대학교 졸업자’의 소득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 ① $\neg$, $\vdash$
② $\neg$, $\dashv$
③ $\neg$, $\curlyeqsucc$
④ $\vdash$, $\curlyeqsucc$
⑤ $\dashv$, $\curlyeqsucc$

28. 다음 <그림>은 학생들의 학습전략 중 시연 전략의 사용정도를 지역규모,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 조사한 자료이다. 본 자료가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0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라고 할 때, <보기>의 해석 중 <그림>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1〉 지역규모별

〈그림2〉 성 별

〈그림3〉 아버지 교육수준별

〈보 기〉

시연 전략의 사용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규모,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ㄱ)중학교 1학년 때에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시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광역시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ㄴ)시간이 흐름에 따라 읍면지역 학생들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고 광역시의 감소폭은 작아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광역시 학생들이 시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성별에 따른 시연 전략의 사용 정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ㄷ)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학생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ㄹ)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대졸 이상인 경우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ㅁ)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들이 시연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9. 다음 <표>는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수를 주택 유형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1>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수 (1995~2003)

(2003년 가격수준 = 100)

연 도	매매가격 지수				전세가격 지수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1995	78	103	91	64	68	87	71	58
1997	81	102	92	69	73	90	76	65
2000	74	88	80	66	78	84	81	74
2001	81	91	86	75	91	93	93	88
2002	94	98	96	92	100	101	99	99
20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2>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수 (2003~2008)

(2007년 가격수준 = 100)

연 도	매매가격 지수				전세가격 지수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003	85	95	85	82	94	106	95	89
2004	84	92	80	81	89	97	87	86
2005	87	93	81	86	92	95	87	91
2006	97	97	92	98	98	98	95	98
200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8	103	102	108	102	102	102	105	101

- ① 2007년에 10억원인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은 2002년에 9억 8,000만원이다.
 ②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은 1995~2003년 기간과 2003~2008년 기간 모두 상승하였다.
 ③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은 1995~2007년 사이에 24% 상승하였다.
 ④ 1995~2008년 사이에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낮은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⑤ 2004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각각 10억원이라고 하면, 2007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차이는 1억 4,000만원 이상이다.

30. 다음 <표>는 견습직원 50명의 판매결과와 제품별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견습직원 전체의 총 판매액이 1,900만원이고, 한 가지 제품만을 판매한 사원이 17명이라 할 때, C제품을 판매한 견습직원의 수는? (단, 동일 제품을 2개 이상 판매한 견습직원은 없음)

<표1> 견습직원 50명의 판매결과

판매액	견습직원 수
0원	2
150,000원	3
200,000원	9
350,000원	()
500,000원	()
550,000원	8
700,000원	3

<표2> 제품별 가격

제품	가격
A제품	150,000원
B제품	200,000원
C제품	350,000원

- ① 24명 ② 25명
 ③ 26명 ④ 27명
 ⑤ 28명

31. 다음 <표>는 세 명의 평가자 (O₁, O₂, O₃)가 10명의 대상자를 평가한 자료이다. 2차 평가시 평가자 O₃가 '경주'에 대한 평가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나머지 등급은 1차 평가결과와 동일) 1차, 2차 평가에서 '평가자 간 일치도'가 가장 낮은 평가자들로 묶인 것은?

<표> 1차 평가결과

평가대상자 \ 평가자	대희	태희	종민	양혜	민지	규준	남영	경주	병갑	창석
O ₁	B	C	A	C	D	B	D	C	A	B
O ₂	B	C	A	C	D	B	D	D	A	B
O ₃	D	C	C	A	D	D	C	C	A	B

〈정 보〉

$$o \text{ 평가자 간 일치도} = \frac{\text{평가결과가 일치한 대상자수}}{\text{전체 평가대상자수}}$$

- | | | |
|---|---------------------------------|---------------------------------|
| | 1차 평가 | 2차 평가 |
| ① | O ₂ , O ₃ | O ₁ , O ₂ |
| ② | O ₂ , O ₃ | O ₂ , O ₃ |
| ③ | O ₂ , O ₃ | O ₁ , O ₃ |
| ④ | O ₁ , O ₃ | O ₁ , O ₂ |
| ⑤ | O ₁ , O ₃ | O ₂ , O ₃ |

32. 다음 <표>는 현 거주지의 선택 이유와 불만 이유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지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1> 현 거주지 선택 이유

(단위: %)

구 분 \ 지 역	전국	a	b	c	d	e	f	g	h
경제적 능력	48.8	51.4	53.0	55.5	50.6	50.9	56.7	48.2	50.7
직장	16.6	17.9	14.5	13.5	16.0	18.4	15.6	13.7	16.2
교통	5.4	5.2	7.2	7.3	5.3	5.1	6.9	6.7	5.8
근린생활시설	1.0	1.1	0.8	0.6	1.1	1.6	0.4	1.6	1.9
교육환경	4.6	3.4	5.9	4.0	6.0	4.8	3.7	8.8	8.3
자연환경	4.5	6.3	2.9	4.2	5.5	4.6	3.0	5.6	4.5
자녀 육아 및 양육	1.7	1.5	1.7	1.8	2.0	1.1	1.3	2.1	2.6
경제적 가치	1.1	1.8	0.9	0.7	1.0	1.3	1.6	1.1	1.4
기타	16.3	11.4	13.1	12.4	12.5	12.2	10.8	12.2	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2> 현 거주지 불만 이유

(단위: %)

구분 \ 지역	규모	시설	일조 및 통풍	경제적 가치하락	임차료	기타	합계
전국	37.2	34.1	12.7	8.3	4.2	3.5	100.0
a	37.3	30.2	13.6	9.8	4.5	4.6	100.0
b	42.9	24.2	16.6	8.0	5.5	2.8	100.0
c	34.5	37.0	12.9	9.9	3.9	1.8	100.0
d	36.2	35.2	12.9	9.4	4.4	1.9	100.0
e	34.6	36.3	15.4	7.2	4.7	1.8	100.0
f	43.7	24.4	14.2	13.1	2.9	1.7	100.0
g	35.4	41.6	9.1	5.3	4.6	4.0	100.0
h	35.2	41.3	11.4	5.5	3.6	3.0	100.0

<정 보>

- 서울과 인천은 현 주거지 불만 이유 중 ‘시설’ 항목에서 전국 값보다 낮고, 서울은 현 거주지 선택 이유 중 ‘직장’ 항목에서 인천보다 낮다.
- 대구는 현 주거지 선택 이유 중 ‘교육환경’, ‘자녀 육아 및 양육’ 항목에서 전국 값보다 높고, 현 거주지 불만 이유 중 ‘일조 및 통풍’ 항목에서 전국 값보다 높다.
- 부산은 현 거주지 선택 이유 중 ‘교통’, ‘근린생활시설’, ‘교육환경’, ‘자연환경’, ‘자녀 육아 및 양육’ 항목에서 전국 값보다 높다.
- 대전은 현 거주지 선택 이유 중 ‘경제적 가치’ 항목에서 전국 값보다 높다.

- ① [서울-a], [대구-e], [부산-g], [대전-c]
- ② [서울-b], [대구-d], [부산-g], [대전-h]
- ③ [서울-a], [대구-d], [부산-h], [대전-c]
- ④ [서울-a], [대구-e], [부산-h], [대전-c]
- ⑤ [서울-b], [대구-e], [부산-g], [대전-h]

33. 다음 <표>는 주요 OECD 회원국의 총의원수와 여성의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주요 OECD 회원국의 총의원수와 여성의원수

국 가	하원 또는 단원		상원		의원 1인당 인구수
	총의원수	여성의원수	총의원수	여성의원수	
한 국	299	41	-	-	162,237
미 국	435	73	98	15	706,235
일 본	480	54	242	44	264,747
영 국	646	126	746	147	94,602
독 일	622	204	69	15	137,675
뉴질랜드	122	41	-	-	35,112
네덜란드	150	62	75	26	111,440
스 위 스	200	57	46	10	38,022
스 웨 덴	349	164	-	-	25,959
캐 나 다	308	68	93	32	108,725
헝 가 리	386	43	-	-	25,662
호 주	150	40	76	27	141,751
핀 란 드	200	83	-	-	26,251
벨 기 에	150	53	71	27	69,429
노르웨이	169	66	-	-	27,557

주) 의원 1인당 인구수 = $\frac{\text{인구수}}{\text{상원의원수} + \text{하원의원수}}$ 또는 $\frac{\text{인구수}}{\text{단원의원수}}$

- ① <표>의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하원의원이 상원의원보다 많다.
- ② 스위스의 인구는 헝가리의 인구보다 적다.
- ③ <표>의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하원의 여성의원 비율이 상원의 여성의원 비율보다 높다.
- ④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6개 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이 3번째로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 ⑤ <표>의 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이다.

34. 다음 <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래프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과 납세인원

(단위: 천명)

연도	확정신고인원(A)				과세미달 추정인원(B)	납세인원 (A+B)
	기장 신고인원	추계 신고인원	비사업자			
1998	495	718	12	1,225	2,270	3,495
1999	573	749	20	1,342	2,066	3,408
2000	680	856	80	1,616	1,864	3,480
2001	790	951	41	1,782	2,026	3,808
2002	919	1,023	68	2,010	2,150	4,160
2003	1,018	1,013	84	2,115	2,112	4,227
2004	1,144	989	103	2,236	2,127	4,363
2005	1,230	966	84	2,280	2,090	4,370
2006	1,395	1,221	120	2,736	1,844	4,580
2007	1,585	1,315	174	3,074	1,839	4,913

〈표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의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단위: 천명, 억원)

연도	전체			소득금액 기준 상위 20%		소득금액 기준 하위 20%	
	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1998	1,225	214,097	30,156	131,962	25,136	7,436	248
1999	1,342	246,763	35,578	156,475	30,235	8,214	250
2000	1,616	321,671	48,031	205,526	40,802	9,698	269
2001	1,782	364,054	55,373	242,264	48,275	10,079	278
2002	2,010	421,634	57,455	283,395	50,478	10,545	256
2003	2,115	452,239	62,887	309,267	55,898	10,126	219
2004	2,236	491,798	69,438	342,191	62,528	9,700	147
2005	2,280	541,033	74,372	380,219	67,386	9,918	167
2006	2,736	650,011	92,324	463,727	84,291	10,477	169
2007	3,074	771,241	112,775	556,826	103,436	12,306	205

주) 소득금액 기준 상위(하위) 20%의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전체 인원에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위(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확정신고자들의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임

〈보 기〉

ㄱ.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대비 확정신고인원 비율

ㄴ. 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1명당 소득금액

ㄷ. 연도별 확정신고인원의 소득금액 기준 상위 20% 소득금액의 비율과 하위 20% 소득금액의 비율간의 관계

주: 1) 하위 20%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확정신고인원의 소득금액 기준 하위 20\% 소득금액})}{(\text{확정신고인원 전체 소득금액})} \times 100$
2) 상위 20%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확정신고인원의 소득금액 기준 상위 20\% 소득금액})}{(\text{확정신고인원 전체 소득금액})} \times 100$

ㄹ. 연도별 확정신고인원의 소득금액 기준 하위 20% 확정신고자 1명당 결정세액

ㅁ. 연도별 확정신고인원 중 가장신고인원 비율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5. 다음 <표>는 2000년 종합소득세 및 1인당 가처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A, B 각각에 들어가야 할 값에 가장 근사한 값들을 묶은 것은?

<표1> 2000년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및 세율 조정시 산출세액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세율 하향 조정시 산출세액 추정	
	현행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인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조정 소득세율	산출세액
1천만원 이하	10	0	969,847	7,068,340	341,609	9	A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1	426,796	10,898,466	1,301,870	18	1,129,003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30	5	87,541	5,293,224	999,302	27	855,601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	13	14,373	1,363,151	324,983	36	273,799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40	13	25,886	4,102,266	1,238,039	36	1,080,583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13	2,296	887,861	316,425	36	281,798
5억원 초과	40	13	1,910	2,405,624	922,563	36	827,824

주) 개인 i의 산출세액 = i의 과세표준 × $\frac{\text{해당 소득세율}}{100}$ - i의 누진공제액

<표2> 현행 소득세율 및 조정 소득세율 하에서의 1인당 가처분소득
(단위: %, 만원)

과세표준 계급	현행 소득세율	현행 1인당 가처분소득	조정 소득세율	조정 후 1인당 가처분소득
1천만원 이하	10	694	9	B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2,249	18	2,289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30	4,905	27	5,069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	7,223	36	7,579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40	11,065	36	11,673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4,888	36	26,396
5억원 초과	40	77,647	36	82,607

주) 특정 과세표준 계급의 1인당 가처분소득 = $\frac{(\text{소득금액} - \text{산출세액})}{\text{해당 계급의 인원}}$

- A

B
- ① 307,448

697
- ② 307,448

676
- ③ 310,864

697
- ④ 636,150

676
- ⑤ 636,150

663

36.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단위: 천명, %)

연 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65세 이상 인구 중 복지시설 생활자비율
2001	1,420	3.0	334	9.3	0.5
2002	1,351	2.8	329	8.7	0.4
2003	1,374	2.8	340	8.6	0.5
2004	1,424	3.0	352	8.5	0.6
2005	1,513	3.1	368	8.4	0.7
2006	1,535	3.2	374	8.1	0.9
2007	1,550	3.2	386	8.0	1.0

- <보 기>
- ㄱ.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 중 복지시설 생활자’의 수는 2배로 증가했다.

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은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보다 매년 3배 이상 크다.

ㄷ. 2001년 대비 2007년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의 증가는 2001년 대비 2007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의 증가율보다 낮다.

ㄹ.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의 증가율이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7. 다음 <표>는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연구비 수혜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사립대학교 전임교원 및 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명, 개, 백만원)

구 분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계
전임교원	829	1,333	374	369	2,905
전체 연구과제	827	1,747	480	169	3,223
교 내	379	317	138	49	883
교 외	448	1,430	342	120	2,340
중앙정부	264	1,064	244	103	1,675
지자체	45	46	9	4	104
민 간	139	312	88	12	551
외 국	0	8	1	1	10
전체 연구비	46,995	122,812	33,478	14,832	218,117
교 내	8,344	4,584	3,130	1,319	17,377
교 외	38,651	118,228	30,348	13,513	200,740
중앙정부	25,586	90,974	25,268	12,498	154,326
지자체	4,225	4,229	1,114	757	10,325
민 간	8,840	22,081	3,951	253	35,125
외 국	0	944	15	5	964

〈표2〉 국립대학교 전임교원 및 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명, 개, 백만원)

구 분	E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	계
전임교원	1,485	899	638	905	3,927
전체 연구과제	2,023	1,261	1,357	1,210	5,851
교 내	324	513	825	53	1,715
교 외	1,699	748	532	1,157	4,136
중앙정부	1,197	484	361	762	2,804
지자체	38	44	41	14	137
민 간	442	186	130	380	1,138
외 국	22	34	0	1	57
전체 연구비	197,462	73,797	38,794	82,297	392,350
교 내	5,299	4,413	5,776	1,378	16,866
교 외	192,163	69,384	33,018	80,919	375,484
중앙정부	155,394	57,955	23,418	62,891	299,658
지자체	10,051	4,975	4,970	353	20,349
민 간	25,083	5,205	4,630	17,505	52,423
외 국	1,635	1,249	0	170	3,054

<보 기>

- ㄱ. 전체 대학교 중에서 전임교원 1명당 연구과제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는 과제 1건당 연구비도 가장 많다.
- ㄴ. 교내 연구과제 1건당 연구비가 가장 많은 국립대학교의 전체 연구비는 교내 연구과제 1건당 연구비가 가장 적은 사립대학교의 전체 연구비보다 적다.
- ㄷ. 국립대학교 중 전체 연구과제수에서 중앙정부 과제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교는 다른 국립대학교와 비교할 때 전체 연구비에서 교내 연구과제 연구비의 비율이 가장 높다.
- ㄹ. 전체 대학교 중에서 전임교원 1명당 민간 연구과제 연구비가 가장 적은 대학교는 지자체 연구과제 연구비가 가장 적다.

- ① $\neg$, $\perp$
 ② $\perp$, $\top$
 ③ $\neg$, $\top$
 ④ $\perp$, $\bot$
 ⑤ $\neg$, $\bot$

38. 다음 <표>는 주요국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민율 현황 및 교육수준별 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1〉 주요국 교육수준에 따른 이민율 현황

(단위: %)

국 가	1980년도 이민율			1990년도 이민율			2000년도 이민율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캐 나 다	4.7	6.6	4.9	3.4	4.3	4.7	2.6	3.1	4.4
일 본	0.1	0.3	0.9	0.1	0.3	1.2	0.1	0.2	1.1
한 국	0.2	0.7	4.2	0.6	0.8	5.3	0.6	1.0	4.4
인 도	0.1	0.2	3.2	0.1	0.3	2.8	0.1	0.3	4.2
이스라엘	2.2	2.6	7.5	1.6	3.0	8.1	1.0	3.0	7.4
호 주	0.7	0.7	1.4	0.8	0.4	1.5	0.4	0.8	2.1

$$\text{주: 1) 이민율}(\%) = \frac{\text{교육수준별 이민자수}}{\text{교육수준별 인구수}} \times 100$$

2) 주요국의 모든 인구는 고학력, 중학력, 저학력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함

〈표2〉 주요국의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만명)

국 가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총인구
캐나다	600	1,500	900	3,000
일본	4,800	4,800	2,400	12,000
한국	1,000	2,500	1,500	5,000
인도	48,000	60,000	12,000	120,000
이스라엘	300	400	300	1,000
호주	1,500	900	600	3,000

주) 연도별 주요국의 교육수준별 인구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보기〉

- ㄱ. 2000년도 중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이민율 간 차이가 가장 작은 나라의 2000년도 전체 이민자수는 1980년도 한국의 전체 이민자수보다 많다.
- ㄴ. 1990년도 고학력자 이민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이민자수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늘고 있다.
- ㄷ. 2000년도에 전체 이민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일본이다.
- ㄹ. 1980년도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이민율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의 2000년도 전체 이민자수는 캐나다의 2000년도 고학력자 이민자수보다 적다.

- ① $\neg$, $\perp$
② $\neg$, $\top$
③ $\neg$, $\exists$
④ $\perp$, $\top$
⑤ $\perp$, $\exists$

39. 다음 <표>는 A대학교의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 관한 자료이다. 학생들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수업행동분석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3>의 (ㄱ)~(ㄴ)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면?

<표1>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학년별 승인인원

(단위: 명)

구분	학과(전공)명	학년별 승인인원	학과(전공)명	학년별 승인인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0	영어교육과	60
	윤리교육과	40	일어교육과	40
	사회교육과	40	한문교육과	40
일반대학 교직과정	독어교육	5	화학교육	6
	불어교육	5	생물교육	6
	중국어교육	5	가정교육	6
	전문상담	5	영양교육	5
	수학교육	6	보건교육	6

주)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2학년부터 이수가능함

<표2> 교육대학원 학기별 입학정원

(단위: 명)

구분	학과(전공)명	학기별 입학정원	학과(전공)명	학기별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6	화학교육	4
	영어교육	6	생물교육	4
	수학교육	6	영양교육	5
	사회교육	4	음악교육	5
	윤리교육	4	미술교육	5

주) 교육대학원은 5학기제로 운영됨

<표3> A대학교의 수업행동분석실 확보율

구분	학과(전공)수	수업행동분석실 보유 개수	수업행동분석실 확보율
사범대학	(ㄱ)	2개	(ㄴ)
일반대학 교직과정	(ㄴ)		
교육대학원	(ㄷ)		
총계	(ㄹ)		

<정 보>

- 수업행동분석실 확보율의 '학과(전공)수'란에서 사범대학은 전체 학과수를 기재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전공)의 학생수는 제외한다.

•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과(전공)수 = $\frac{\text{교육과정 이수학생수}}{30}$

※ 교직과정 이수학생수는 각 학과(전공) 전체 학년별 승인인원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 교육대학원 학과(전공)수 = $\frac{\text{전체학생수}}{30}$

※ 전체학생수는 전체 학기별 입학정원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 수업행동분석실 확보율(%) = $\frac{(\text{수업행동분석실 개수} \times 10)}{\text{학과(전공)수 총합}} \times 100$

	(ㄱ)	(ㄴ)	(ㄷ)	(ㄹ)	(ㅁ)
①	6	5.5	7.3	18.8	106.4
②	9.3	5.5	5.9	20.7	96.6
③	6	3.9	8.2	18.1	110.5
④	9.3	3.9	8.2	21.4	93.5
⑤	6	3.9	7.3	17.2	116.3

40. 다음 <표>는 A~E국의 2008년과 2009년 경제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의 내용을 참고하여 2009년의 전년 대비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부터 순서대로 정렬한 것은?

<표> 각 국의 2008년, 2009년 경제지표

구분	2008년			2009년		
	1인당 명목GDP(\$)	1인당 실질GDP(\$)	GDP 디플레이터	1인당 명목GDP(\$)	1인당 실질GDP(\$)	GDP 디플레이터
A	()	()	()	54,000	28,000	180
B	40,000	20,000	200	50,600	23,000	220
C	34,800	29,000	120	()	()	()
D	33,000	30,000	110	49,500	33,000	150
E	44,000	27,500	160	42,900	33,000	130

주: 1) t 년도 GDP디플레이터 = $\frac{t\text{년도 } 1\text{인당 명목 GDP}}{t\text{년도 } 1\text{인당 실질 GDP}} \times 100$

2) 기준년도 GDP디플레이터 = 100

3) 전년 대비 t 년도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 $\frac{t\text{년도 } 1\text{인당 실질 GDP} - (t-1)\text{년도 } 1\text{인당 실질 GDP}}{(t-1)\text{년도 } 1\text{인당 실질 GDP}} \times 100$

4) 1인당 실질 GDP의 기준년도는 2000년임

<정 보>

- A국의 2008년 'GDP디플레이터'는 B국의 2008년 'GDP디플레이터'의 70% 수준이다.
- A국의 2008년 '1인당 명목GDP'는 D국의 2008년 '1인당 명목GDP'보다 \$600 더 많다.
- C국의 2009년 '1인당 명목GDP'는 A국의 2009년 '1인당 명목GDP'의 80% 수준이다.
- C국의 2009년 'GDP디플레이터'는 2008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 ① A-E-B-D-C
- ② A-E-B-C-D
- ③ E-B-A-D-C
- ④ E-A-B-D-C
- ⑤ E-A-B-C-D